



PMC 프로덕션

브로드웨이를 난타하는 문화벤처의 도전

PMC프로덕션 송승환 대표

PMC프로덕션 송승환 대표(46)는 기업가보다는 연기자로서 더 유명하다. 연기자 생활 40년을 바라보는 그는 요즘 아이들에겐 그저 낯선 이름이겠지만 청장년층에게 한 시절을 풍미했던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그는 문화벤처의 선두에 나섬으로써 배우라는 좁은 영역을 훌쩍 넘어서 국내 유수의 기업가 반열에 올라섰다. PMC프로덕션이 제작한 퍼포먼스극 <난타>는 전세계를 '난타' 하며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한 작품이다.

사실, 그가 몸담아왔던 극단이란 벤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다. 흥행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1996년 4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환 퍼포먼스’ 라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극단들이 동인시스템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 저는 극단도 자본력과 맨파워를 갖춘 기업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화벤처 태동시킨 <난타>의 성공

결국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의 극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듬해 PMC프로덕션을 설립하며 <난타>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벤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일부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당시로서는 놀라울 만큼 대중적 호응과 갈채가 뒤따랐다. 1997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4000여 회 공연을 기록했고, 150만이 넘는 관객이 다녀갔다.

<난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과 문화벤처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많은 벤처기업들에게 그러하듯,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기업을 유지하기에는 국내시장이 너무 좁았다.

송 대표는 애초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했다. 이를 위해 치밀한 복안을 세워두고 있었다.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언어장벽을 피해야면서도 보편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언어연극'(non verbal performance)으로 승부하자는 것이었다. 세계인들의 흥을 돋구며 각광받던 사물놀이의 리듬을 접목시키기 위해 명인 김덕수를 기획과 제작에 참여시켰다. 여기에 주방을 배경으로 한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덧붙여졌다. 치밀한 전략과 아이디어는 벤처의 필요조건이 아닌가. 언젠가 소설가 주인석과의 인터뷰에서 송 대표는 "대중들의 욕망을 읽는 눈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았다.

"막상 <난타> 공연이 담긴 비디오를 들고 해외로 날아가 보니 막혔습니다. 공연을 팔아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우리나라의 문화이미지가 너무나 약했어요.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브로드웨이 아시아'라는 유능한 에이전트회사를 만났고,



송 대표는 가끔씩 선물 받은 지구본을 돌려본다. 이미 <난타> 공연을 다녀온 16개 나라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올 9월, PMC 코리아의 <난타>는 브로드웨이의 뉴

1999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참가를 권유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난타의 '성공신화'가 시작되었다.

국내 관광객 시장 새로 만들어

<난타>공연으로 안정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난타>전용관을 만들고 나서부터였다. 문화벤처 역시 '하드웨어'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해외 16개국을 돌며 공연했던 자신감으로 관광객들을 노렸다. 요즘은 국내 관객보다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객들이 더 많다 한다. 매회 평균 500명의 관객 중 80%인 400명이 외국인들이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일본인 관광객들이다.

"일년에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들어오지만, 마땅히 볼거리가 없었어요. 이들 중에 10%만 끌어도 60만입니다. 브로드웨이의 장기 공연물들도 80%가 넘는 외국관광객들로 채워지거든요. 우리나라의 연극 관람객이 연평균 30에서 40만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세요. <난타>는 해외공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요."

그에게는 다른 기업가에게 없는 강점이 있었다. 일단 사람들이 잘 만나 주는 걸 보면 유명 배우로서의 경력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런 까닭인지 송 대표는 연기와 경영, 둘 다 열성이다. 올 11월 <아마데우스> 공연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데우스>는 송 대표를 아역 탤런트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연기자로 성장시킨 <에쿠스>의 피터 쉐퍼가 쓴 작품이다.

최초로 공연문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영자로서의 부담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도 발끝까지 기업가의 모습이었다.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비극적 영혼, 모차르트 역에서 CEO 송승환으로 '커튼콜' 되는 순간을 그는 기꺼이 즐기고 있는 듯싶다. **KOVA**

● CEO의 애장품 ●

빅토리 극장과 계약을 맺고 공연할 예정이다. 현지의 반응에 따라, 송 대표의 염원이었던 브로드웨이 장기상설공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다. 송 대표가 자못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귀뜸해준다.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뉴빅토리 극장의 프로모터를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작품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가 우리 공연을 찾아와서는,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계약 건을 내놓았어요."